

2021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작품전



한문서예, 한글서예, 논어, 한시
수채화, 한국화, 민화

| 전시기간 | 2021. 12. 07.(화) ~ 12. 10(금) (4일간)

| 전시장소 | 양양문화원 1층 전시실

| 후 원 | 양양군   양양군의회



2021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작품전



한문서예
한글서예
논 어
한 시
수 채 화
한 국 화
민 화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양문화원 문화학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훌륭한 강사님들의 지도하에 2021년 한해를 무탈하게 마무리하고, 그동안 열심히 배우신 작품들을 출품하여 문화학교 작품전시회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수강생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창작활동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김진하 양양군수님과 김의성 양양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지역문화 창달과 발전을 위해 애정으로 향토문화를 아껴주시는 양양군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료식 작품전시회는 수강 과정 몇 번의 휴강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짧은 시간 동안 배운 수강생들의 작품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실력을 겸비한 훌륭한 작품들을 출품하였습니다.

힘겨운 여건임에도 수강생과 강사님들의 열정으로 만들어낸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서로 간에 즐겁고 행복한 경쟁이 되는 공간을 만들고, 모든 이의 창작문화의 예술 활동을 옆 볼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양양군민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간직한 예술적 소질과 재능을 끌어내어 함께 즐거운 작품 활동을 통해 행복함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즐거운 삶이 되는 계기를 부여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아무쪼록 올 한해 바이러스 감염에 어려움을 이겨내며 열심히 수강생들을 지도해 주신 각 교실 강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신축년(辛丑年) 마무리 잘하시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에는 회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함께하신 여러분들 모두 항상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시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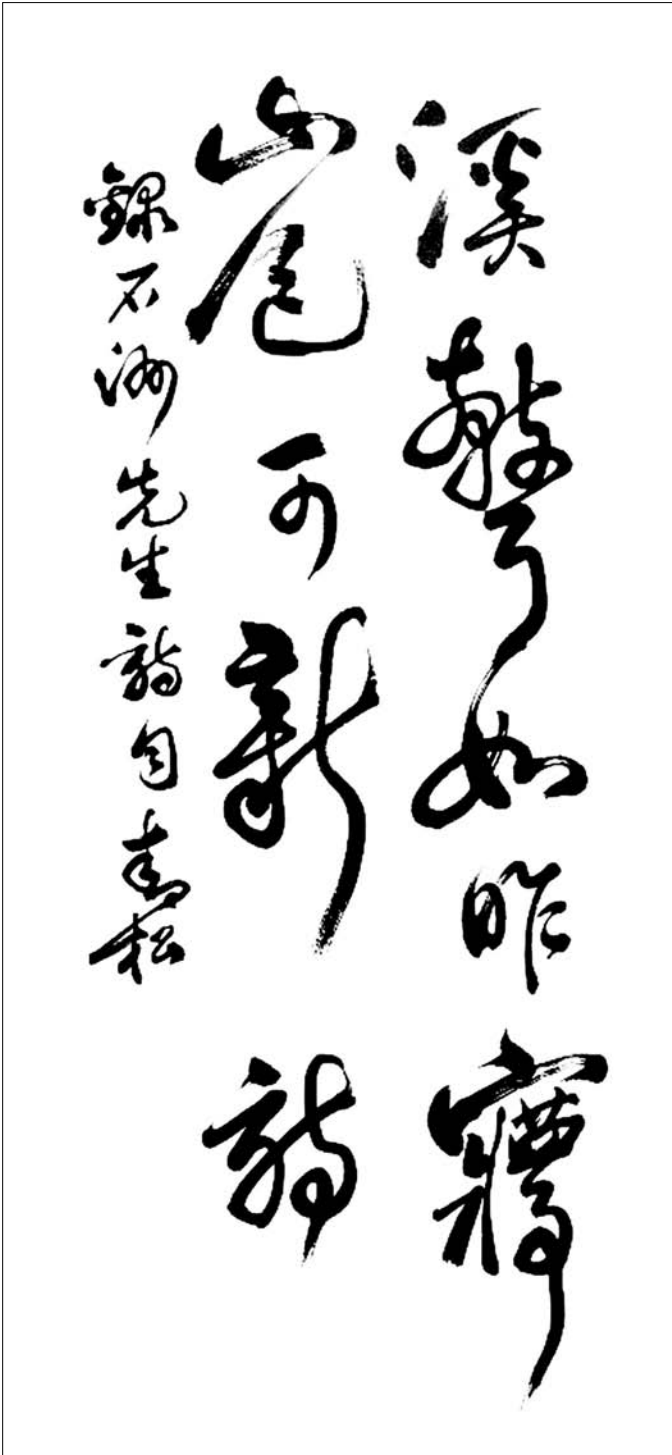
양 양 문 화 원 장
윤 여 준

한문서에 교실



• 지도강사 : 함연호

• 수료자 : 김기송 김덕주 박상울 박상혁 신동우 안병돈 양마루치
 용정숙 윤정희 이광우 이근천 이재각 전성우 전옥병
 + 최용일 김경희 윤지환 강미현 +



석주선생시



지도강사 靑松 咸衍鎬

畫樓東畔俯蓮池罷
酒來看急雨時溜滿
即傾敲器似聲喧不
厭淨襟宜

錄退溪先生詩一首
牛步金基松

퇴계선생시



牛步 金基松

連樹落陰梅雨晴半
簾秋氣和禪生故國
青山夢一髮落花深
晝渾無聲

錄萬海先生陰晴詩
峴泉金惠柱

만해선생시



峴泉 金惠柱

落花春檻雨霏微
病客無聊獨掩扉
廬岳一壺來慰寂
陶然身世揔忘機

魯田朴商律

채의당상만치심



魯田 朴商律

梨花落盡曉米雨黃
 鳥飛鳴何處却春欲
 暮時君又在閑愁離
 恨共消魂

録象村先生詩一首
 忠岩申東禹

상촌선생시



忠岩 申東禹

坤溪月引相過
 持薛羅甘限喜山行
 雲深處老僧多
 松枝
 白

詠釋靈信院詩
 昭云尹貞姬

석령선생시



昭云 尹貞姬

少年易老學難成一寸
 光陰不可輕未與覺池
 塘春草夢階前梧
 葉已秋聲

錦明心寶鑑句
 裕哲尹智煥

명심보감 구



裕哲 尹智煥

見捕蜻蜒翁補籬小
 溪春水浴鷺鷥青山
 斫處歸程遠橫擔烏
 藤一箇枝

錦梅月堂先生詩一首
 松湖李光雨

매월당 시



松湖 李光雨

客裏青燈秋夜長
 床前蟋蟀語新涼
 倚窗詩思清於水
 更聽關河鴈報霜

錄梅月堂先生詩
 春坡李根千

매월당 시



春坡 李根千

經術相承積善家每
 魁蓮榜世傳誇含香
 且得提文柄舞彩仍
 將戴賜罍

錄陽村先生詩一首
 峴齋崔容一

양촌선생 시



峴齋 崔容一

한글서예 교실



• 지도강사 : 김광희

• 수료자 : 김순자 김순희 김영순 노복현 로재창 박상혁 양영철
엄윤옥 이주옥 이해경 임진선 전선주 홍의태

그 때 의 자 실은 응 아 름 님 님 다 그 런 자 실 로 아 무 것 도
 의 양 이 없 는 구 요 노 보 리 하 는 것 이 었 지 만 그 려 는 의 양 이 없 는 구
 의 양 이 없 는 것 이 었 는 가 리 니 보 니 그 리 하 지 말 기 를
 幸哉幸哉 幸哉幸哉 幸哉幸哉 幸哉幸哉 幸哉幸哉

세종어록에서

새 들 을 이 날 아 서 가 고 의 료 는 구 르 는 것 을
 로 가 니 한 가 지 없 네 아 주 보 아 지 르 실
 이 많 는 이 경 경 사 이 일 을 배 이 르 나
 衆鳥高飛盡 孤雲獨去閑 相看兩不厭 只有敬亭山
 이 흰 이 섬 일 년 시 달 경 경 사 이 들 로 앉 아 르 는 산 가 볼 고 오 김 영 순

옛시조



고요 김 영 순

아 피게겨울을 빙빙 돌고 불을 點火한 梅花동을
 푸아침앞에 한자서피어있네 先驅의 功을
 傳히어 聽聞이 聲을 聞

병신년 이른 봄에 이호우 詩생기
 매화에 서 읊 백봉 로재창

이호우 시

어린시절의 수원을 장성해서 못이 컸으나 영
 평의 원래부터 바라지도 안았네 기이한 재주
 없으니 시에 못이 없지만 마음바르면 때를 만
 나기 마련임 세 친구를 함께 부르며 술어지내
 나 평양남을 의바라 남 함께 떠나질 않네 온갖
 생각은 누가 아 말할수 있단 한술에 잡시라
 平壤의 聲을 傳을 가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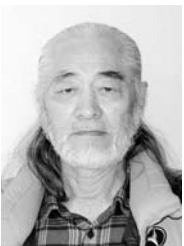
운곡원친정인성의 시에 서 읊
 백봉 로재창

운곡선생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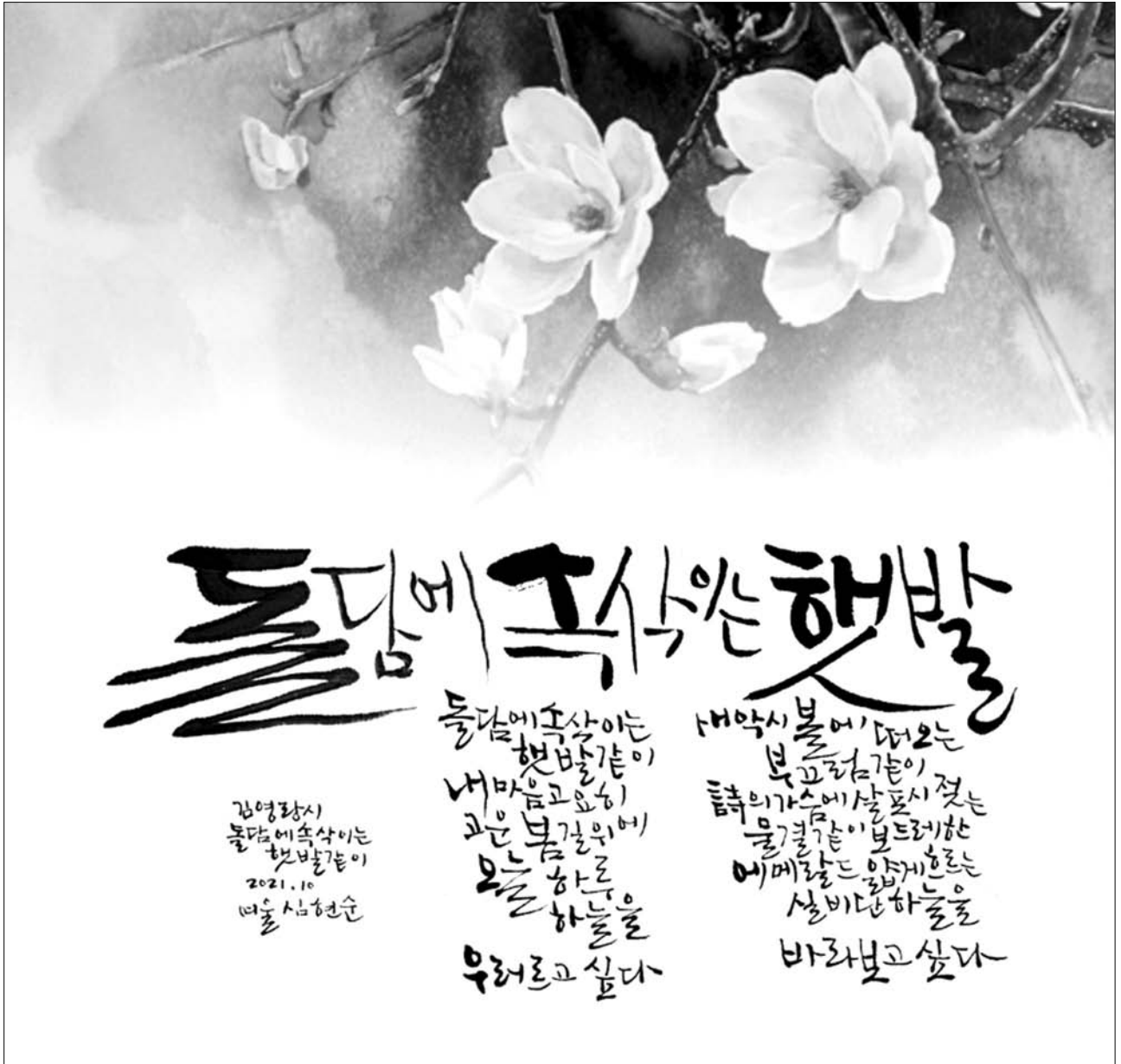
평창 평양의 꽃향기 향기 이북시명인가 꽃수관
 은사평을 향하는 명맥이 남을 암차리 지우지
 못함 평양이 가리니 평평하게

병신년 초 가을에 옛시조
 한평을 읊 백봉 로재창

옛시조



백봉 로재창



김영랑 시



여울 심 현 순

허전하면 땀을 뺀다. 長衫을 입고 산을 오르니 자우가 돌
 週의 길에 僧俗이 무에다. 沙門은 단단히 없
 고 行者도 말일 일의 데. 僧의 산의 門이 무에 起居
 하. 行의 門이 일의 데. 僧의 산의 門이 무에 起居

정완영 원생의
 혜지 엄 윤 옥

정완영 시



혜지 엄 윤 옥

장마미기침을 잘기 쉬고 마기침을 안기
 원생기침을 안기 쉬고 마기침을 잘기
 시뭇말에 안기 쉬고 마기침을 잘기
 햇빛말에 안기 쉬고 마기침을 잘기
 위엔 배넌 개똥하의 기침을 잘기
 마을 씻어 버린네

이 원이 삼 안년 가은 배은 구기 원생
 시를 삼 해 지 엄 윤 옥

운곡선생 시

정안도끼기침을 잘기 쉬고 마기침을 안기
 원생기침을 안기 쉬고 마기침을 잘기
 시뭇말에 안기 쉬고 마기침을 잘기
 햇빛말에 안기 쉬고 마기침을 잘기
 위엔 배넌 개똥하의 기침을 잘기
 마을 씻어 버린네

선조 3년 가을에 문수보살게송에 써서 혜지 엄 윤 옥

문수보살게송

님의 영혼은 수영장에 물결이 님을 떠돌고
 님의 영혼은 수영장에 물결이 님을 떠돌고
 님의 영혼은 수영장에 물결이 님을 떠돌고
 님의 영혼은 수영장에 물결이 님을 떠돌고

우리 발의 외딴은 물이 느껴지는 이 물방울
 시인의 물방울은 시의 씨를 하늘을 전한다

이흔복시 물방울



하늘 전 선 주

참된 성품은 영혼을 그 원만하고 온갖
 묘함을 지녔고 법이로 위와 사인 세계
 의 기운은 언더플로아 하를 일찌루누나

운곡 원천석선생시

운곡 원천석선생 시

창영의 초상을 보아도
 의기어우라 다투지
 안다 법이로 위와
 싸인게 제
 의기어우라 다투지
 안다 법이로 위와
 싸인게 제

운곡선생 시

유한함을 지냈고
 법이로 위와 싸인
 세계의 기어우라
 다투지 안다 법이
 로 위와 싸인게 제

운곡선생 시

천하의 기어우라
 다투지 안다 법이
 로 위와 싸인게 제
 의기어우라 다투지
 안다 법이로 위와
 싸인게 제

나옹선사 시

신축년 초가을에 나옹선사 시를 쓴 가목홍의 태



가목 홍 의 태

논어 교실



• 지도강사 : 최영택

• 수료자 : 강영건 김원래 김윤래 김희석 양동창 이근천 최돈균
한상호 홍창진 황광수 황재권 이건남

在其中矣

葉公語孔子曰吾黨
有直躬者其父攘羊
而子證之孔子曰吾
黨之直者異於是父
爲子隱子爲父隱直
在其中矣

論語句 辛丑晚秋 如林崔永澤

在其中矣



지도강사 여림 최 영 택

一以貫之

子曰賜也女以

予爲多學而識

之者與對曰然

非與曰非也予

一以貫之

論語句辛丑晚秋 醉山姜永健

一以貫之



취산 강영건

直

子曰

人之生也直

罔之生也幸

而免

論語句 辛丑晚秋 施泉金元來

直



시천 김원래

論語學而

學而時習

辛丑 晚秋 蒼波 舍允來

學而時習



창파 김윤래

學而時習

子曰學而時習之
不亦說乎有朋自
遠方來不亦樂乎
人不知而不愠不
亦君子乎

論語句 辛丑晚秋 誨巖金會奭

學而時習



회암 김 회 석

見得思義

子張曰士見危

致命見得思義

祭思敬喪思哀

其可已矣

論語句 辛丑晚秋 南岡梁東昌

見得思義



남강 양 동 창

道德仁藝

子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志於道 도에 뜻을 두며

授於德 덕을 배우게 되며

依於仁 인에 의지하며

遊於藝 예에 능숙하여야 한다

論語의 卷五 季秋

喜坡 李根千

道德仁藝



춘파 이근천

有君子之

道四焉

子謂子產有君子

之道四焉其行己

也恭其事上也敬

其養民也惠其使

民也義

論語句 辛丑晚秋 崔燉均

有君子之 道四焉



최 동 균

君子有三愆

子曰侍於君子

孔有三愆言未及之

而言謂之躁言及

而不言謂之隱未

見顏色而言謂

之瞽

論語句 辛丑晚秋 青山 黃光洙

君子有三愆



청산 황 광 수

過則勿憚改

子曰君子不重則

不威學則不固主

忠信無友不如己

者過則勿憚改

論語句 辛丑晚秋石井黃在權

過則勿憚改



석정 황재권

我無能焉

子曰君子道三

我無能焉

仁者不憂知者

不惑勇者不懼

子貢曰夫子自

道也

論語句 辛丑晚秋 沙江李建南

我無能焉



사강 이 건 남

仁者不憂

有德子必有言

有言者不必有

德仁者必有勇

勇者不必有仁

論語句 辛丑晚秋 箕山洪昌珍

仁者不憂



기산 홍 창 진

한시 교실



• 지도강사 : 이종우

• 수료자 : 김경일 김기송 김덕주 김무풍 김윤래 김준호 김형래
박문희 박상형 서승호 안병대 양동창 이상권 이성복
최종학 추종삼 한현숙 황광수 황재권

題：願五色索道建設

巍然雪嶽聳吾東	(외연설악용오동)	오동에 높이 솟은 설악산에
索道鄉民願一同	(삭도향민원일동)	삭도를 향민은 하나같이 원하네.
萬客祈求連美俗	(만객기구련미속)	만객이 기구하니 미풍이 이어지고
四隣應援起良風	(사린응원기량풍)	사린이 응원하니 양풍이 일어나리.
如鳶絕壁飛騰夢	(여연절벽비등몽)	솔개같이 절벽을 날아오르는 꿈을 이루고
似鹿奇巖下降功	(사록기암하강공)	사슴같이 기암을 하강하는 공을 이루리라.
玩賞人波迎不絕	(완상인파영부절)	완상의 인파를 끊임없이 맞을 것이니
襄陽勝地太平隆	(양양승지태평릉)	승지 양양은 태평하고 융성하리라.



지도감사 又泉 李鍾富

題：願五色索道建設

公園索道最初通	(공원삭도최초통)	국립공원 삭도사업이 최초로 통과되어
五色靑峯示範終	(오색靑봉시범종)	설악산오색靑봉이 시범 사업으로 이루어졌네.
環境天然毀損守	(환경천연훼손수)	천연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고
交通老幼便宜充	(교통노유편의충)	노인과 어린이의 교통 편의를 충족시키게 하리라.
官廳適正研攻信	(관청적정연구공신)	관청에서는 적정하게 믿음이 가도록 연구하여
部署時中許可衷	(의지시중허가충)	부서에서는 시기에 알맞게 충심으로 허가하시고.
政府民聲傾聽力	(정부민성경청력)	정부는 백성의 소리를 경청하는데 힘쓰고
國家發展盡誠功	(국가발전진성공)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진성으로 공을 세우소서.

(社)韓國漢詩協會襄陽支會長
南岡 梁東昌



題：願五色索道建設

雪嶽巍然最海東	(설악외연최해동)	높이 솟은 설악산은 해동에서 제일이라
觀光索道願公同	(관광삭도원공동)	관광 삭도를 공동으로 원한다네.
四隣應援連良俗	(사린응원연양속)	사린이 응원하니 양속이 이어지고
萬客祈望亮美風	(만객기망양미풍)	만객이 기망하니 미풍이 밝아지네.
郡吏忠謀牽大業	(군리충모견대업)	군리의 충모로서 대업을 이끌고
鄉民協力贊元功	(향민협력찬원공)	향민의 협력으로 원공을 도우리라.
助成後日人波溢	(조성후일인파일)	조성한 후일에는 인파가 넘쳐날 것이니
天惠襄陽福永隆	(천혜양양복영용)	천혜의 양양에는 오래오래 복이 풍성하리.



桂堂 金慶一

題：願五色索道建設

白頭雪嶽聳關東	(백두설악용관동)	백두대간 설악산이 관동에 우뚝 솟았는데
索道希望萬姓同	(삭도희망만성동)	삭도건설을 희망하는 것은 온 백성이 한마음이로다.
現況推移沈激浪	(현황추이침격랑)	현재의 상황은 격랑 높에 빠져 불확실하나
當爲浮刻起旋風	(당위부각기선풍)	당위성을 부각시켜 선풍적 바람이 불고 있네.
權容地氣支援力	(권용지기지원력)	권익위 인용은 땅의 기운이 도운 힘ियो
法判天玄保佑功	(법판천현보우공)	법원의 판결은 하늘의 정기가 도운 공이로다.
解決難題將建設	(해결난제장건설)	난제가 해결되어 삭도가 건설되면
襄陽氣運日新隆	(양양기운일신용)	양양의 기운이 날로 새롭게 융성해지리라.



牛步 金基松

題：願五色索道建設

索道精誠建設窮	(삭도정성건설궁)	케이블카 건설에 정성을 다하니
文明所産感歎同	(문명소산감탄동)	모두가 감탄하는 문명의 소산이로세.
郡民宿願流清水	(군민숙원류청수)	군민들의 숙원은 맑은 물처럼 흐르고
鄉土基盤帶瑞風	(향토기반대서풍)	향토의 기반은 상서로운 바람 띠 들렀네.
推進完成橫海接	(추진완성횡해접)	추진 완성하여 가로지르면 바다와 접하고
決行確保往天通	(결행확보왕천통)	결행 확보하여 가면 하늘로 통하네.
名聲燦爛層層色	(명성찬란층층색)	이름도 찬란한 굵이굵이 오색이며
國內觀光第一中	(국내관광제일중)	국내관광 속에 제일이어라.



岷泉 金 惠 柱

題：願五色索道建設

雪嶽天然最海東 (설악천연최해동) 설악산 자연은 우리나라 최고의 으뜸이니

竣工索道願誰同 (준공삭도원수동) 케이블카 설치를 누구나 다 원하오.

靈山絕景千人報 (령산절경천인보) 영산의 절경을 천인에게 알리고

仙境奇風萬客公 (선경기풍만객공) 선경의 기이한 풍광을 만객에게 공표하세.

政策推揚圓滑達 (정책추양원활달) 정책을 잘 추진하여 원활히 통해서

官民協力認知通 (관민협력인지통) 관민 협력하여 인지도를 잘 통하소서.

青峯建設襄陽街 (청봉건설양양현) 청봉에 건설만 하면 우리 양양의 자랑이요

國際觀光地域隆 (국제관광지역용) 국제관광으로 지역이 융성하리.



東林 金茂豊

題：願五色索道建設

五色青峯秀麗東	(오색청봉수려동)	동방에 수려한 오색과 청봉에
施工索道萬民同	(시공삭도만민동)	삭도 건설을 만민이 같이하네.
白頭正脈連祥氣	(백두정맥연상기)	백두산 정맥 상서로운 기운이 이어지고
雪嶽中心起瑞風	(설악중심기서풍)	설악산 중심에 서기가 이리라.
障礙便宜傾總力	(장애편의경총력)	장애 편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高齡利用積多功	(고령이용적다공)	고령 이용에 많은 공을 쌓는구나.
觀光事業精誠盡	(관광사업정성진)	관광사업에 정성을 다하면
天下名區國運隆	(천하명구국운용)	천하 명구에 국운이 융성하리.



蒼波 金允來

題：願五色索道建設

莊嚴雪嶽秀關東	(장엄설악수관동)	장엄한 설악산 관동에 빼어났는데
宿願襄陽索道工	(숙원양양삭도공)	양양군민 숙원케이블카 시공함이라.
天惠紅霞歡賞客	(천혜홍하환상객)	천혜의 붉은 노을에 상객이 환호하고
地符白霧魅詩翁	(지부백무매시옹)	땅에 부합한 흰 운무에 시옹은 매료되네.
層嶂觀望無窮樂	(층장관망무궁락)	층장을 관망함은 한없는 즐거움이요
斷岸登攀不易功	(단안등반불이공)	단안의 등반은 쉬운 공적 아닐세.
障礙便宜何歲送	(장애편의하세송)	장애인의 편의는 어느해를 보내며
高齡利用曷時通	(고령이용갈시통)	고령의 이용은 어느 때 개통이 되려는지.



撮朗 金俊鎬

題：願五色索道建設

雪嶽巍巍擅海東	(설악외외천해동)	우리나라 으뜸인 높디높은 설악에
觀光索道願和同	(관광삭도원화동)	관광의 삭도를 화동하여 원하네.
奇巖似鹿回來樹	(기암사록회래수)	기암으로 사슴 같은 것이 돌아오는 숲이 되고
絕壁如鳶復古風	(절벽여연복고풍)	절벽으론 솔개 같은 것이 복고의 바람 일으키리.
郡內恒時呼合力	(군내항시호합력)	항시 군내에서는 합력을 호소하며
鄉中每日請成功	(향중매일청성공)	매일같이 향중에선 성공을 청하네.
賴斯大業將新設	(뢰사대업장신설)	이에 힘입은 대업이 장차 신설되면
畢竟襄陽富茂隆	(필경양양부무용)	필경 양양은 부유하게 번성하여지리라.



看山 金亨來

題：願五色索道建設

缺如索道大山東	(결여삭도대산동)	동쪽 큰(설악)산에 삭도가 없어
其得非禽焦思同	(기득비금초사동)	그것 얻으려 날짐승 아니면 애탐이 한가지네.
懇請民心來冷雨	(간청민심래냉우)	간절히 청하는 민심에 찬비만 오고
援用環境起寒風	(원용환경기한풍)	환경을 원용하여 찬바람을 일으키네.
行爲失意修流淚	(행위실의수류루)	행위로 실의에 빠진 눈물을 닦아주는
許可真情建立功	(허가진정건립공)	진정 어린 허가만이 건립의 공이네.
何日自由登雪嶽	(하일자유등설악)	어느 날 자유롭게 설악산에 오르는
觀光五色願成隆	(관광오색원성윤)	관광 오색으로 큰 융성을 바라네.



笑海 朴文熙

題：願五色索道建設

雪嶽巍巍擅海東	(설악외외천해동)	우리나라 으뜸인 높디높은 설악에
觀光索道願和同	(관광삭도원화동)	관광의 삭도를 화동하여 원하네.
奇巖似鹿回來樹	(기암사록회래수)	기암으로 사슴 같은 것이 돌아오는 숲이 되고
絕壁如鳶復古風	(절벽여연복고풍)	절벽으론 솔개 같은 것이 복고의 바람 일으키리.
郡內恒時呼合力	(군내항시호합력)	항시 군내에서는 합력을 호소하며
鄉中每日請成功	(향중매일청성공)	매일같이 향중에선 성공을 청하네.
賴斯大業將新設	(뢰사대업장신설)	이에 힘입은 대업이 장차 신설되면
畢竟襄陽富茂隆	(필경양양부무용)	필경 양양은 부유하게 번성하여지리라.



士川 朴相亨

題：願五色索道建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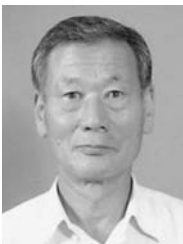
五色天然冠我東	(오색천연관아동)	천연의 오색은 우리나라에서 으뜸으로
渴望索道四隣同	(갈망삭도사린동)	갈망하는 삭도 건설은 사린이 같도다.
大山建設觀山海	(대산건설관산해)	대산에 건설해 산과 바다 바라보며
高嶺加工訝嶺風	(고령가공아령풍)	고령에 가공하여 영바람 맞는다.
政客忠誠傾總力	(정객충성경총력)	정객의 충성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鄉民協助積多功	(향민협조적다공)	향민의 협조로서 많은 공을 쌓자.
老弱障礙謀利用	(노약장애모이용)	노약자 장애인의 이용을 꾀하니
國內觀光解慍隆	(국내관광해은용)	국내관광에 한이 풀려 성하리라.



法印 徐昇昊

題：願五色索道建設

五色青峯冠我東	(오색청봉관아동)	오색과 청봉 아동에서 으뜸이라
懇望索道萬民同	(간망삭도만민동)	삭도 건설 만민이 간망하는구나.
朝廷各署陳堂業	(조정각서진당업)	조정 각부서에 당당한 사업 진달하고
社會全般起烈風	(사회전반기열풍)	사회 전반에 열렬한 바람 일으키자.
生態保持傾總力	(생태보지경총력)	생태 보전 유지에 총력 기울이고
自然愛護積多功	(자연애호적다공)	자연 사랑 지킴에 많은 공 쌓아가자.
至難此事將成就	(지난차사장성취)	지난한 이 일이 장차 성취된다면
天下名區讚歎隆	(천하명구찬탄웅)	천하 명구로 크게 찬탄 될 것이다.



小丘 安炳大

題：願五色索道建設

青峯雪嶽脈南東	(청봉설악맥남동)	청봉은 설악산맥 남동이니
五色天然勝地同	(오색천연승지동)	천연 승지 오색과 함께하네.
登頂探望存懇夢	(등정탐망존간몽)	청봉 정상 탐망은 많은 사람의 간절한 꿈인데
陟山施設有難風	(척산시설유난풍)	등산로 시설이 부실해 어렵고 위험하네.
京都蹶起千民共	(경도궤기천민공)	상경 궤기대회 천만민이 함께했으니
市郡歎聲庶政通	(시군탄성서정통)	시군민의 탄성이 각 정사에 통했으리라.
索道總和團結建	(삭도총화단결건)	삭도를 총화 단결하여 건설하면
賴斯後代必興隆	(뢰사후대필흥용)	이를 힘입어 후대 반드시 흥융하리라.



瑞潭 崔鍾學

題：願五色索道建設

莊嚴雪嶽冠關東	(장엄설악관관동)	장엄한 설악산은 관동에서 으뜸이니
索道襄陽願共同	(삭도양양원공동)	양양에 삭도 건설은 다 함께 원하노라.
地域宿題成早速	(지역숙제성조속)	지역의 숙제가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住民惠澤實均蒙	(주민혜택실균몽)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입을 것이다.
靑峯頂閣威容歎	(청봉정각위용탄)	대청봉 정류장의 위용에 감탄하니
蒼昊鳶車傑氣功	(창호연차걸기공)	창공에서 솔개미차 뛰어난 기풍의 공이로다.
佳景名區當復舊	(가경명구당복구)	가경에 명구로 당연히 복구될 것이니
觀光發展活豐隆	(관광발전활풍용)	관광 발전으로 주민 생활이 풍성하리라.



冠山 秋 鍾 三

題：願五色索道建設

雪嶽千峯秀我東	(설악천봉수아동)	설악산 천봉우리 우리나라에서 빼어나고
希求索道萬民同	(희구삭도만민동)	삭도를 희구하는 마음 모든 사람 같구나.
國家各部陳當業	(국가각부진당업)	국가 각 부서에서 당당한 사업으로 펴 가고
社會全般發烈風	(사회전반발열풍)	사회 전반에서 세찬 바람 일으키자.
障礙便宜依少力	(장애편의의소력)	장애인에게도 적은 힘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老齡利用與多功	(노령이용여다공)	노령자의 이용에 많은 공으로 이바지하자.
京鄉賞客如雲集	(경향상인여운집)	경향의 상객들이 구름처럼 모일 것이니
天下名區讚歎隆	(천하명구찬탄웅)	천하의 명승지로 찬탄이 극진하리라.



太炫 韓賢淑

題：願五色索道建設

五色天然樞域東	(오색천연근역동)	천연적인 오색은 근역의 동방이요
襄陽索道熱望同	(양양삭도열망동)	양양의 삭도비상 열망하는동감이라.
正行意氣良民度	(정행의기량민도)	바른 행위 의기로움 어진 백성 법도이며
特出名區德祖風	(특출명구덕조풍)	특출한 명구로서 덕의 조상 바람일세.
日想銘心咸助力	(일상명심함조력)	일상적 마음 새겨 조력을 다 함이라.
時評覺性促成功	(시평각성촉성공)	시사평론 각성하니 성공을 재촉하며
山羊守護淳環境	(산양수호순환경)	산양무리 수호하는 환경이 깨끗함에
頂上靑峯建設隆	(정상청봉건설용)	대청봉 정상 주위 삭도 건설 융성하길.



靑山 黃光洙

題：願五色索道建設

快飛 建願無窮	(괘비가건원무궁)	케이블카 건설함에 원하건데 무궁이라
寤寐不忘感慟同	(오매불망감통동)	자나 깨나 불망이라 누구나가 감통한다.
政府支援承激浪	(정부지원승격랑)	정부에서 지원하여 격랑으로 이어가고
民官主導起旋風	(민관주도기선풍)	민과 관이 주도하여 급격 변화 일으켜야
太山運氣要衝點	(태산운기요충점)	태백산의 기운이라 요충하며 지점이고
五色靈區適地通	(오색령구적지통)	오색 신령 구역으로 적합 지형 통합이라.
二十年間含淚鬪	(이십년간함루투)	이십 년간 눈물 머금 결사 투쟁하였는데
未成現實酷苛中	(미성현실혹가중)	이루지를 못한 현실 혹독하고 모질구나.



石井 黃在權

수채화 교실



• 지도강사 : 김영덕

• 수료자 : 권기복 김두원 김미동 김진미 스즈끼나호꼬 심정순
안삼영 양순옥 양신자 오은영 윤현숙 이도우 전인경
+ 주화진 +



장독에 핀 눈꽃



지도강사 김 영 덕



해사랑



권기복



자매



김 두 원



풍요



김진미



몽맹



스즈끼 나호코



유혹



심정순



산소길



양 순 옥



외갓댁



양 신 자



가을여행



오 은 영



휴식



윤현숙



겨울풍경속으로



이 도 우



내바다



전 인 경



선계의정원-영취산 철죽 114x114, 수묵담채, 한지



지도강사 조 정 승



설국의 농산정 , 10호, 수묵담채, 한지



소화 김 영 미



주전골의 가을은 익어가고.. 10호, 수묵담채, 한지



김영한



주전골의 가을은 익어가고.. 10호, 수묵담채, 한지



박 광 애



우후의 명경대, 15호, 수묵담채, 한지



신 동 우



추억-팽이놀이, 15호, 수묵담채, 한지



안 삼 영



만추의 주왕산 가는길..20호, 수묵담채, 한지



어 정 수



성하의 개여울, 15호 , 수묵담채, 한지



유 철 호



무등산 서석대의 가을, 15호, 수묵담채, 한지



윤길중



첫눈내린 주전골, 15호, 수묵담채, 한지



윤 정 희



초롱쟁주, 10호, 수묵담채, 한지



춘마 이근천



진주성 축석류, 40호, 수묵담채, 한지



태강 이상세



풍성한 가을, 15호, 수묵담채, 한지



우후 이재각



천불동의 겨울 , 50호, 수묵담채, 한지



원재 최종봉



성하의 비룡폭포, 15호, 수묵담채, 한지



석화 황문복

민화 교실



• 지도강사 : 정복자

• 수료자 : 고민숙 김금희 김순이 김이남 김형근 노복현 박광애
이영주 천미랑 최현식



연화유어도-정복자



지도강사 정복자



화조도



늘봄 고민숙



장생도



김금희



연화도



김순이



책가도(1)



책가도(2)



김 이 남



꽃과 호랑이



과석모란도(1)



과석모란도(2)



현담스님



화병도



향운 노복현



일월오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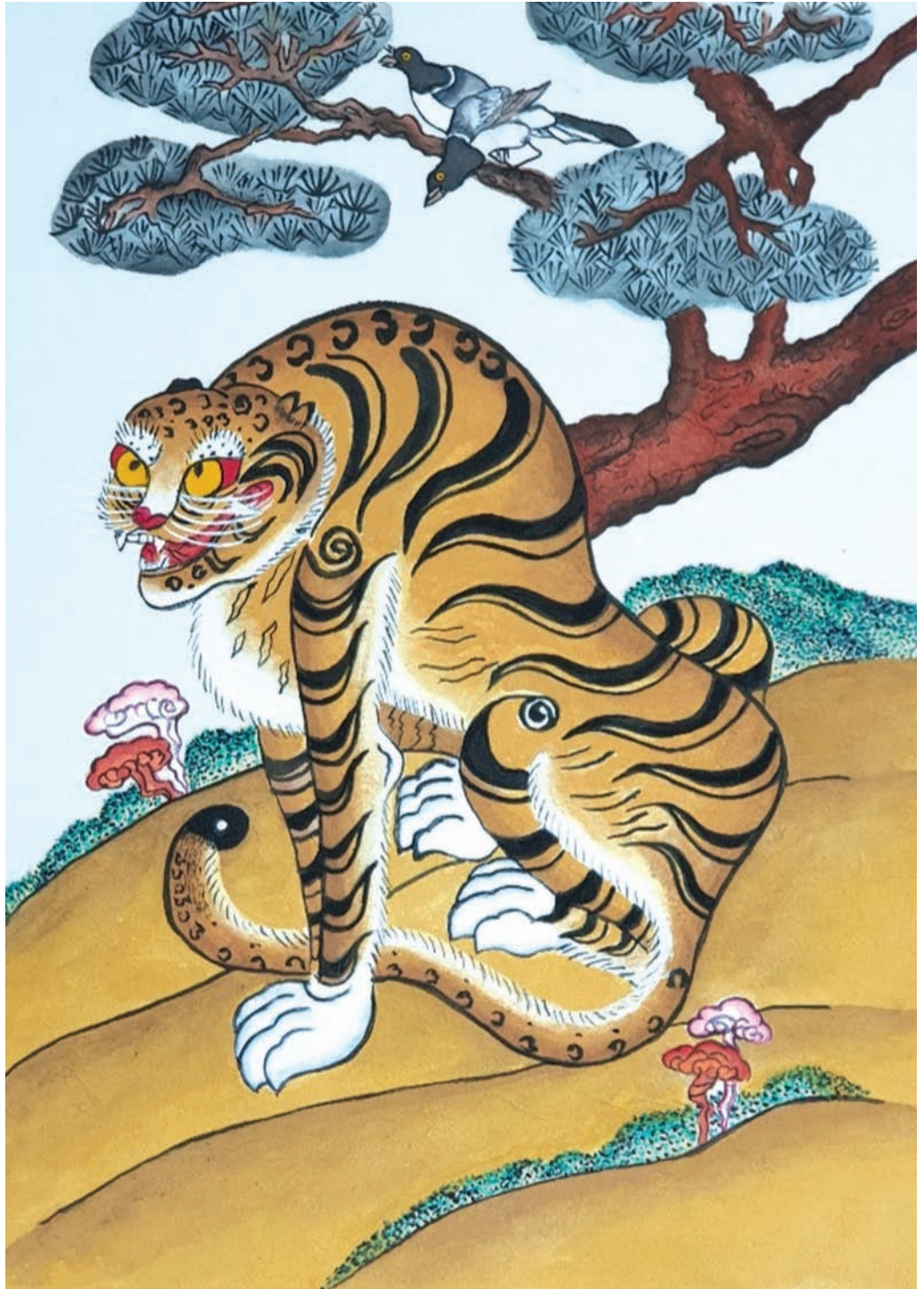
이 영 주



화병도



천미랑



까치호랑이



최현식

2021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작품전

발행일 : 2021년 12월

발 행 : 양양문화원

주 소 :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114-5

전 화 : 033) 671-8762

